

▶▶▶ 2026년 6월 8일

KIWOOM **매크로** 따라잡기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Economist 김유미 / RA 김정현**견조한 미국 고용, 높아진 환율 변동성**

5월 미국 고용보고서는 비농업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재확인했다. 다만 고용 증가가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세부적으로는 일부 취약성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용 증가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했으며 당분간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와 달러화 상승,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CPI와 FOMC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내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불확실성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완화될 경우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 안정될 전망이다.

5월 미국 고용보고서는 시장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됐다. 비농업부문 고용은 17만 2천 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8만 8천 명)를 크게 상회했고, 직전 두 달의 고용 수치도 상향 조정됐다. 3월 고용 증가폭은 21만 4천 명, 4월은 17만 9천 명으로 수정되면서 두 달간 고용 증가 규모는 기존 발표 대비 총 9만 3천 명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레저·접객업이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를 기록했다. 해당 업종에서는 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으며, 특히 음식점과 주점 부문에서 4만 8천 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지방정부 부문 역시 5만 5천 명 증가했고 의료서비스 부문도 3만 5천 명 늘어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레저·접객업과 지방정부의 고용 증가 규모를 합치면 12만 5천 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약 73%를 차지한다. 특히 레저·접객업의 경우 6월 중순 개막하는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채용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어 고용 증가의 지속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전문사업서비스업 등 주요 민간 부문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금융활동 부문은 2만 2천 명 감소하며 주요 산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고용 감소를 기록했고, 보험업과 금융 관련 서비스업, 상업은행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4.3%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025년 7월 이후 4.3~4.5%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어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업자 수 역시 730만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노동참가율은 61.8%, 고용률은 59.2%를 기록해 노동시장 참여 수준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장기실업 문제는 다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는 200만 명으로 전월 대비 큰 변화는 없었으나 1년 전보다 52만 4천 명 증가했다. 장기실업자는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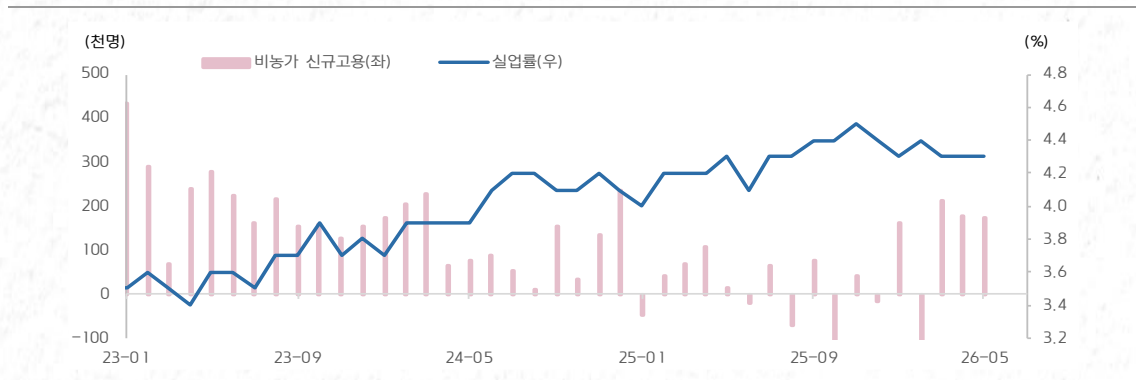
실업자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구 실직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구조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임금 상승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민간 비농업부문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3% 상승한 37.53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3.4%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임금상승률은 지난해 말 3.9% 수준에서 꾸준히 둔화되고 있어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

종합해보면 5월 미국 고용보고서는 헤드라인 수치만 놓고 보면 예상보다 강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고용 증가가 레저·접객업과 지방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용 회복세가 민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실업자와 영구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노동시장 전망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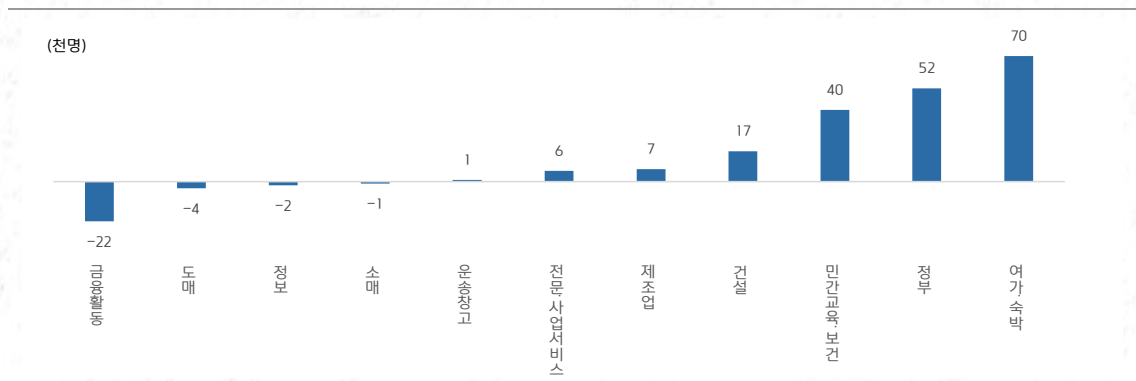
그럼에도 실업률이 4.3%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점은 연준이 노동시장의 급격한 둔화를 우려할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결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금리 인하 역시 서두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 기조가 다소 매파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비농가 신규 고용과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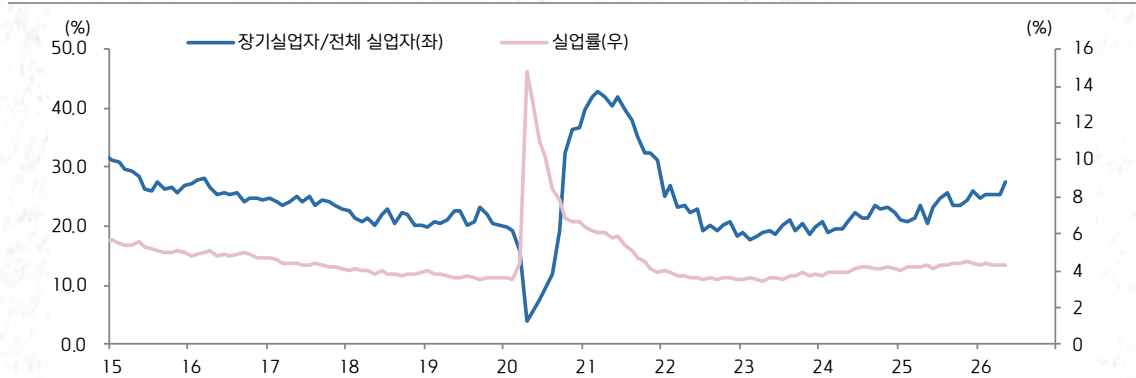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업종별 5월 신규 고용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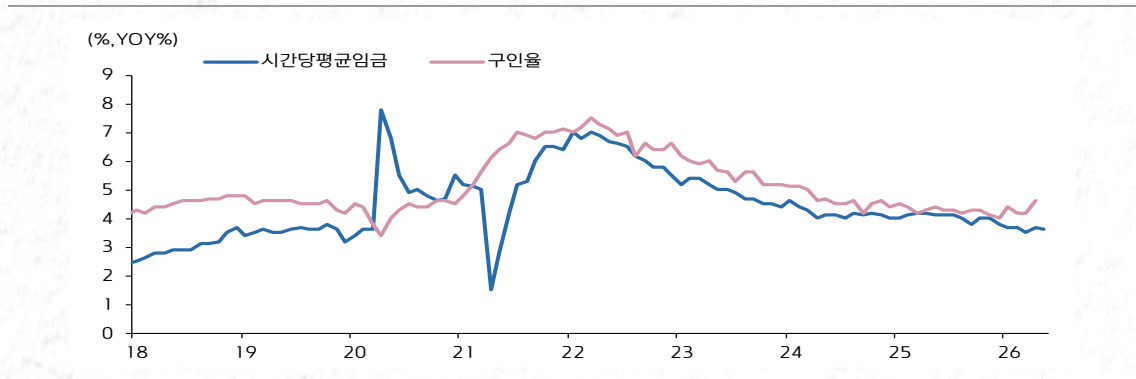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장기실업자(27주 이상)/전체 실업자 비중과 실업률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과 구인율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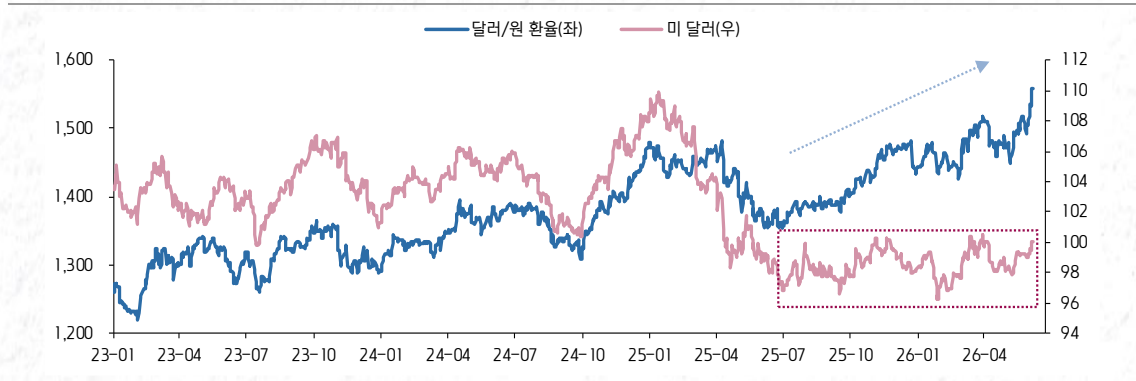
미국 5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은 중등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높아진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은 과거와 달리 경상수지보다 자본수지와 외국인 자금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견조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환율 결정 구조가 경상수지 중심에서 자본수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소비자물가와 6월 FOMC를 앞둔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우세한 상황이다. 중등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유가와 미국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환율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향후 중등 지역의 긴장 완화 여부와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가 단기적인 환율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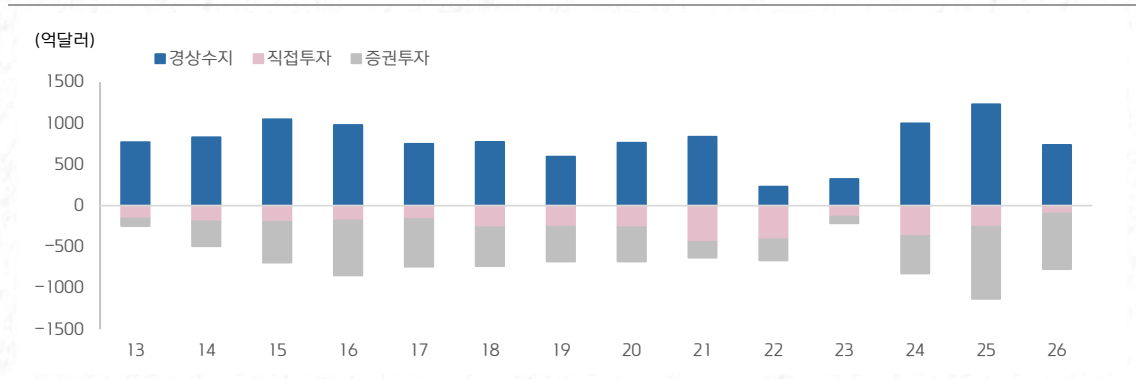
다만 미국 노동시장이 점진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달러 강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될 경우 인플레이션 부담과 연준의 긴축 경계감도 함께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완화될 경우 원화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환율은 점진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 달러와 달러/원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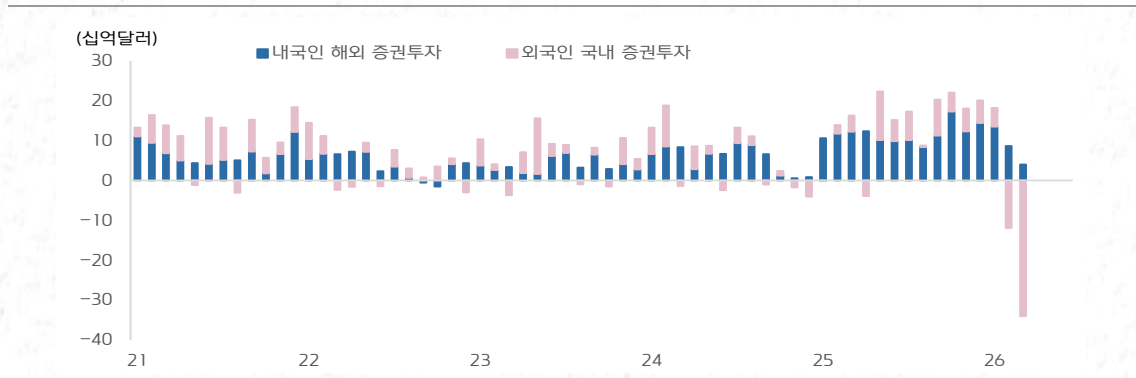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경상수지와 직접, 증권 투자수지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내국인 해외주식투자자와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